

# 기차길 없는 강진군이 코레일과 손 잡은 까닭은?

###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등 상품 교통비·숙박비 지원 관광객 유치

기차길이 없는 강진군이 코레일(KORAIL)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코레일 서울 용산역·광주송정역과 '코로나19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푸소(FU-SO : 필링-업(Feeling-Up), 스트레스-오프(Stress-Off)의 줄임말) 체험' 등 농촌 생활관광을 선도하며 감성여행 1번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강진군이 코레일과 함께 철도여행 상품을 개발해 상생발전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강진군은 철도여행 상품 운용 시교

통비·숙박비 지원, 철도 여행객에 대한 문화관광 해설사 해설, 관광기념품 지원 등을 한다. 코레일은 레일뉴스와 전국 주요 역·여행센터를 활용한 강진군 홍보, 관광객 유치활동에 나선다.

강진군은 최근 관광 트렌드가 대규모 단체관광에서 가족·친구·지인 등 소수 개별관광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을 선도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약 3700억원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가우도 일대에 리조트 호텔과 풀빌라, 해상케이블카 등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군과 코레일이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잠재된 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발전된 관광상품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군과 코레일 서울 용산역·광주송정역은 지난 12일 '코로나19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진군 제공>

## 담양군 6억 들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장애인·독거노인 등 주택 개보수

담양군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2021년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담양군은 사업비 6억1800만원을 들여 열악한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해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유지,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선, 독거노인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유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나 무료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와 가구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사업 대상은 70가구, 사업비는 5억원이다.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증·개축, 리모델링 및 수장, 난방, 설비사업과 실내 화장실 설치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선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거주 주택에 비상연락 장치, 욕실, 부엌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이동 편의 증진과 생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독거노인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의 취약한 주택 단열상태 개선을 위해 노후 창호나 보일러 교체 등을 내용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10가구를 개보수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3월부터 사업대상자를 파악하고, 4월부터 증·개축, 리모델링, 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나주시, 전 시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 총력전

### 노인·장애인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오후 6~8시 직장인 야간창구 운영

나주시가 '전 시민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행정에 나섰다.

나주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중증질환자·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서비스'와 직장인을 위한 '야간 접수창구'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신청 마감일인 19일까지 읍·면·동 직원들이 마을별·아동장과 해당 가구 또는 경로당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을 돕고 현장에서 상품권을 곧바로 지급한다.

'야간 접수창구'는 일과 시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평일 방문 신청과 동시에 현장에서 상품권을 곧바로 지급한다.

야간 창구 운영은 직장인 비중이 높은 빛가람동(혁신도시)과 송월·영강·금남·성북·이장·영산동, 공산·금천면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영강동(13·14일 오전 10~오후 5시), 금남동(13일 오전 9시~오후 1시), 다시·금천면



나주시가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목표로 '찾아가는 서비스'와 '야간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14일 오전 10시~오후 5시)는 야간 창구 대신 주말 창구를 각각 운영한다.

적극 행정 추진에 힘입어 나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률은 11일 기준 82%를 기록했다.

전체 지급대상자(11만6161명) 중 9만5225명이 신청서를 접수한 가운데 9만1130명(78.5%)이 상품권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주시는 오는 22~31일 8일 간 읍·면·동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이의 신청 접수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나주=손영철 기자 yson@kwangju.co.kr

## 남도 순례길 강진 구간 2km 해안 산책길 개설

강진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국 90개 1470km의 걷기여행 구간 중 강진의 '남도 순례길 구간'에 새로운 산책로를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구간은 남도 유배문화와 다양한 순례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구간이다. 강진에서 노을이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잘 알려졌으나, 주변에 산책로가 없어 사고 위험이 상존했었다.

강진군은 노을 경관 조성사업의 하나로 산책로 개설공사를 추진해 칠량면 영북리부터 대구면 사당리까지 야자메트 구간과 테크로드 구간을 조성했다. 더불어 길이 2km, 폭 3m의 해안 산책코스 조성도 완료했다.

강진군은 이번 산책로 개설 공사를 통해 '남도 순례길 구간'에서 자전거와 걷기 여행은 물론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여유롭게 노을을



강진군이 칠량면 영북리에서 대구면 사당리까지 '남도순례길'의 산책로를 개설했다. <강진군 제공>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코로나19로 지친 관광객들에게 탁 트인 자연의 아름다움과 힐링을 선사하며 지역관광과 연계한 감성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함평군, 내년 농림축산식품 46개 사업 국비 신청 농촌 구조개선 등 750억 규모

함평군은 내년 농림축산식품 사업으로 총 46개 사업 750억3100만원을 확정, 예산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 사업은 농촌 구조개선을 통해 농업과 농촌발전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함평군은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 등 시대적 흐름에 맞게 농업 구조를 바꾸고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농촌협약사업 등 46개 과제를 발굴했다.

분야별로 농업분야 42개 사업 654억9600만원, 축산분야 2개 사업 89억4400만원, 임업분야 2개 사업 5억9100만원이다.

함평군은 최근 대학교수, 유관기관장, 농·축협·산림조합장, 농업인단체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 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농정

방향의 적합성 등을 평가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농업소득 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마련, ICT를 기반으로 농업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함평군의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전남도·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국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